

## 간계와 사랑

김미리내(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열정! 열정이란 위험하고도 기이한 것이다. 열정은 어느 대상에 대해 미치도록 열중하는 것을 뜻한다. 열정이 상기시키는 단어는 사랑이나 애정 같은 긍정적인 것들이지만, 무언가에 아주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증오와 슬픔, 질투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뜨겁다' 라는 성질일 것이다. 열정은 통제하기 어렵게 번져간다. 열정은 이성과 냉철한 계산력, 판단력을 흐려놓는다. 그런 차가운 것들은 열정의 열기 아래서 녹아버린다. 열정이라는 것 하에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당연한 것처럼 쉽게 허물어 진다. 그는 어린아이가 되어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믿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그것이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맹목적으로 변해가고, 통제하기 힘든 어린아이처럼 날뛰다. 그래서 열정은 위험하다. 열정의 이런 기이함과 위험함 때문에, 그러한 열정의 소유자들과 그의 주변 인물들은 파국을 맞기 쉽다. 실러의 비극, 간계와 사랑도 마찬가지다.

페르디난트는 영주의 측근인 수상의 아들이다. 한마디로, 귀족이다. 반면에 루이제는 아버지가 악사인 시민계급 출신이다. 페르디난트는 루이제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이다. 그는 그와 루이제의 신분상의 차이가 그들에게 부과할 수많은 고난과 많은 장애물들을 고려하지도, 생각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루이제와 자신이 만들어갈 낙원을 그리며 자신의 맹목적 사랑을 이어간다. 그의 이런 때문지 않아 더욱 위험한 이상주의와,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열정은 그와 루이제의 사랑 속에 파멸의 씨앗을 심는다.

그런 배경 하에 페르디난트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간계가 교차하게 된다. 첫 번째는 밀포드 부인이 짠 간계이다. 밀포드부인은 영주인 공작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서, 궁정생활의 허위와 가식에 진저리치게 되며, 그런 가식이 없는 페르디난트를 사모하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간계를 짜는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용하여 페르디난트의 아버지인 수상이 그의 아들과 자신과의 혼사를 추진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간계는 실패로 돌아가고야 만다. 페르디난트는 그녀를 찾아가서 루이제를 사모하고 있음을 말하고, 혼인을 거부한다. 그 후 루이제를 만난 부인은 크게 깨닫고 부패한 정치와 간계의 나라를 떠나려고 국경을 넘는다. 그리고 이 간계의 실패로 페르디난트의 아버지는 크게 노한다.

두 번째 간계는 일찍이 루이제를 결혼상대로 점 찍어 놓았으나 페르디난트에게 그 자

리를 빼앗긴 부름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수상 사이에서 짜여진다. 수상은 자신의 권위와 루이제의 효심을 이용하여 루이제의 아버지를 감옥에 가둔다. 그리고 루이제로 하여금 아버지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시종장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를 억지로 쓰게 하고, 그 밑에 편지를 우연을 가장하여 페르디난트의 눈에 띄는 곳에 떨어뜨린다. 그 간계는 루이제와 페르디난트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페르디난트는 이 간계에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지고야 만다. 효심이 강하고 기존의 가치를 묵묵히 수용할 줄 아는 루이제는 앞서 페르디난트의 외국으로 도망치자는 부탁을 거절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자 현실주의적인 그녀의 성격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루이제의 특성을 페르디난트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 간계에 의해 쓰여진 편지를 본 순간부터, 페르디난트는 루이제가 시종장과의 밀애 때문에 함께 도망치자는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는 그의 그런 생각에 추호도 의심을 품지 않고, 보여지는 그대로를 사실이라고 여긴다. 도대체 왜?

그는 그 편지를 보고 격분한다. 사람에게로 흐르는 감정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열정의 또 한가지 특성은 관성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사랑과 증오는 종이 한장 차이' 라는. 그가 루이제에게 흘려보내던 엄청난 크기의 사랑이라는 열정은 증오라는 이름으로 갈아타 '루이제'라는 똑같은 유로로 흐르게 된다. 배신감과 질투심에 휩싸인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증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린다.

하지만 아무리 사건의 정황들이 루이제와 시종장의 밀애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딱 들어 맞는다 하더라도 페르디난트에게 있어 루이제를 단 한번의 사건으로 오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을까? 그의 사랑이 발작하듯 갑자기 바뀌어 버린 것이 당연한 걸까? 아니다. 극 중간중간엔 그가 간계를 간파할 수 있었던 몇몇 기회들이 삽입된다. 하지만 그는 루이제가 결백할 것이라는 일말의 가능성도 그의 마음속에 품지 않고 그저 격노하기만 해서 상황을 바라본다.

나는 앞서 열정의 특성들을 언급했었다. 페르디난트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이성까지도 연소해 버리는 위험한 열정 때문이다. 그는 그의 거의 모든 것, 자신의 가족인 아버지까지도 루이제의 사랑을 위해 버릴 준비가 되어있다. 그의 이런 과도하게 열정 넘치는 모습은 극 전반부에 질게 깔려있다. 그가 내뱉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걱정적이며, 루이제를 향한 광신적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 열정은 그의 머리를 마비시킨다. 그는 실재 없이 돌아가는 간계의 세계인 '현실'에서 벗어나 그가 머릿속에 지어놓고 사는 루이제와의 영원한 왕국이라는 이상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인간이다. 열정으로 빚어졌기에 위태롭고, 또한 그렇기에 치명적인 이상향은 조금의 타격에도 쉽사리 무너져 버린다. 감정은 그를 완전히 삼켜버린다.

또한 그의 열정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랑에는 한가지 더 치명적인 오류가 숨겨져 있다. 그는 그와 루이제의 관계에 있어서 루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신과의 사랑 때문에 루이제에게 생길 여러 고난들을 그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저 루이제와의 사

량을 방해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분노할 뿐이다. 그는 또한 루이제를 신뢰하지도 않는다. 루이제가 도망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그는 그의 뜻에 따르지 않은 루이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그는 루이제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가족을 위하고, 기존의 사회체제에 순응적인 루이제는 이상주의자인 그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일방적인 것이며, 쌍방향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사랑에서 열정이 빠진다면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감정만이 중요시되는 사랑을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말하자면 '청춘의 병' 같은 사랑은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한쪽 발을 잃어버린 불완전하고 병적인 사랑이다.

이러한 병적인 사랑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루이제는 그 밀서가 억지로 쓴 것이었음을 편지에 남기고 자살하려고 결심한다. 하지만 루이제는 역시 아버지에게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결심을 취소한다. 그 때 페르디난트는 루이제에게 찾아와 해명을 요구하지만, 루이제는 해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앞서 영주가 아버지의 해방조건으로 루이제에게 그 편지를 억지로 받아 적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시켰기 때문이다. 페르디난트는 절망에 빠져 레몬주스에 비소를 타게 되고, 루이제는 그것을 마시게 된다. 하지만 루이제는 그것을 마신 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죽음에 임박해 페르디난트에게 그 연애편지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페르디난트와 그의 아버지 수상을 용서한다. 그 사실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 페르디난트 역시 죽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이 책을 쉽사리 손에서 놓지 못했다.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잘 예측하지 못했던 탓이다. 인물들은 이 책 안에서 뚜렷한 특징과 성격을 갖고 생생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극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어느샌가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학을 읽는 즐거움이란 그 속에 완전히 몰입되어 또 다른 자아와 사건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점에서 이 비극을 읽는 동안 페르디난트의 자아가 되기도 하고, 루이제의 자아가 되기도 하며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수 백 년간에 걸쳐 '사랑'과 더불어 '열정'은 수많은 문학작품의 주제가 되어왔다. 아마도 열정과 사랑이란 것이 그만큼 깊고, 불가사의하고, 아름다우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나는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 본 것 같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으며, 열정이 존재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로 인해 깊고 고요하다. 실러는 이 비극을 통해 과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